

제42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0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시22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수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신 민형배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은 오늘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특별한 질의·토론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시25분)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로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5건씩이 아니라도 필요하면 자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2,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지방이양이 타당한지 또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쪽입니다.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징계·시정입니다.

6쪽입니다.

4,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이 법정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사업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5,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과 보상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연번 1번,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2번,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안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3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징계·시정요구인데요. 저희는 일부 수용해서 징계와 시정 중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의원실과 협의해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특별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곧 하고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4번,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주의·제도개선인데, 일부 수용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화막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5월 3일인데 그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우선 2번,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주의를 요청하셨지만 제도개선으로 정부 측이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은 제도개선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수용을 하고.

사실은 지금 1, 2단계로 지방이양이 됐고 2023년도 이후에는 다 지방에 이양이 돼서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지자체에 꼭 필요한 사업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정을 해 주시고.

특히 기존에 이미 2023년 이전에 확정된 사업들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부에서는 엄격하게 추가적인 재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 추가 증액을 상당히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대의견이나 아니면 한시 조항을 통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에 연번 3번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징계와 시정을 요청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부 수용해서 시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재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정부 측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한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등이 묵인을 하거나 혹은 가담을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본 결과 2015년 기사부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통예술고라든지 그 위의 대학의 입시에 관해서도 전부 다 카르텔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시정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막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입시 부정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정으로 낮춰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시 부정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덕분에 이번 일을 알게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엄단을 해서 지금 경찰 수사 의뢰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의원실하고 협의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경찰 조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계속 넘어갈 경우에 이런 것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굳어지면 앞으로도 이 카르텔은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정으로 낮춰 드리되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시정으로 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위원 차관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의 지적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대개 예고 차원의 문제는 일반 예고 이런 부분들, 지금 부산에서 브니엘예고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유야무야 또 넘어가는 건데, 대개 그러다 보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버립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넘겨 버리니까 정작 예고나 예술 관련된 분야의 입시비리에 문화부는 그냥 손을 놓고 있

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 대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뭘 지금 새롭게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대학이나 학원하고 전부 다 삼각관계로 연계에 있는 과정인데, 그것 솔직히 아시지 않습니까? 대개 예술 관련된 입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학원에 가서 그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게 꼭 이 전통예술 하나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일반예고나 이런 부분들 전부 교육청, 교육부로 넘겨 버리고 문화부는 손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근본적 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사실 일반예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차세대 문화예술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는 그 구조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대책을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대한 한번 어떤 게 있을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수 위원 잠깐, 이것……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승수 위원 이거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일단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입시·채용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결산에서 입시·채용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징계조치나 고발조치나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 회계 이런 쪽에 대한 시정,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수석전문위원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지금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별감사 후에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연욱 위원님의 말씀, 일반예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그다음에 특별감사 후의 그 조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유형은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시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번,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에 대해서 이기현 위원님께서 주의를,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현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기현 위원 이후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방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입 취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은 사업 기한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업 기한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종료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우셔야지 이렇게 일단 세워 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집행 여부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번에서 5번까지 의견을 내시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7쪽입니다.

6, 공정한 심의 절차 등의 확보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함께누리 지원 사업에서 특정 단체가 장기간 지정공모를 받고 있으므로 지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공정한 심의 절차 도입, 공모와 지정사업의 적절한 비율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8쪽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사업 개선 필요.

용역 유찰과 조달시스템 개편에 따른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과 일정 관리,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8, 예산 이월 및 불용 규모 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확한 예산편성과 예비비 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전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9, 해외 주요 박물관에 우리 문화유산 전시 및 한국관 설치 추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주요 박물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우리 문화유산 전시를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토대로 한국관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것, 주의입니다.

10, 예산 불용 주의 및 실집행을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인데 이에 대해서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정연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연욱 위원 7번,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이 2028년 완공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지요? 예정대로 예산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디자인박물관이 세종시에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사업의 시설 건립은 행복청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5개 박물관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 설계 공모하고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8년인데 행복청에서 조만간 사업 기간을 좀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계속 지적사항 자체가 현재로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그와 별도로, 저희가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도 있지만 박물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소장품을 계속 먼저 구매를 하고 아카이빙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해서 소장품 구매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조달 입찰을 할 때 유찰되는 것 감안해서 사업 기간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관련해서 2028년에 부산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어찌 보면 디자인 경쟁력 부분을 올리는 여러 가지 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국립디자인박물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려면 예산 내역이나 추진 일정 자체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나 용역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 이러면 모든 행사 자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복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문화부가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 반영이나 빨리 착공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 전이라도, 디자인박물관 건립위원회에서도 공사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일정을 다 늦추지 말고 사전에 사전 전시들을 계속 준비해 가면서 개관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라고 하고 있고 부산에서 하는 디자인총회와 연결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전시나 여러 가지 아카이브를 선보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행계획 준비가 좀 제대로 됐으면, 이 지적대로 좀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6번에 보면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집중 지원했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예시한 단체가 빛소리친구들인데 빛소리친구들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가요, 연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장애예술 사업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장애예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기…… 장애예술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별 단체들이 아마 열심히 국회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예산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었고 빛소리친구들도 아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7, 8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 온 부분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 왔던 부분인데……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어쨌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단체가 김건희 여사 이쪽하고 연결 지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3년도 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받은 것 자체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되면 장기간 되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절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연욱 위원님 다른 쪽에서 국립디자인박물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세종시에 박물관 지구가 있고 몇 개 박물관 들어가잖아요, 민속박물관도 가고. 박수현 위원님도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역 문화 발전 또 충청권의 문화 혜택 수요에 좋게 기여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마는 굉장히 우려도 없지 않아요, 사실은.

세종에 디자인박물관이 앞으로 설립이 되었을 때 또 민속박물관 이게 경복궁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경복궁 오는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박물관을 보러 세종까지 가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서는 박물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박물관, 저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K-콘텐츠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관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문화원에도 많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외국의 주요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우리나라로 치면 학예연구사 이런 분들도 보면 그 박물관 내의 수장고나 또 보관하고 있는 한국 관련 문화재 이런 데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새롭게 관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도 할 일이지만 해외 주요 박물관의 수장고에 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그쪽하고 MOU 나 적극적으로 맺어 가지고 조사해서 꼭 환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외국 주요 박물관의 한국관이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가 도난을 덜 당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수장고에 마냥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재발굴된다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국관에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윈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또 그렇게 해외 박물관의 수장고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공동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요구가 주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라기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정정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해외 한국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문화재나 유산들을 보내서 전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해외 한국관의 경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우리 유물이 나갈 수도 있고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물관에서 각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로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연욱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잘 유념하셔서 국정감사 때 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결산심사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유형과 관련하여 연번 9번, 김승수 위원님께서 애초에 주의를 요청하셨고 이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만 지금 발언을 통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1쪽입니다.

11번,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성과 개선 필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과 성과 달성을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12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예산 불용 주의 및 조속한 위원회 구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속히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주의.

12쪽입니다.

13번, 세종학당 사업 목표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 신규 지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과 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며 목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3쪽입니다.

14번,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월·불용액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공연·전

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공연장과 전시장 확충, 순회 공연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지역에서 매칭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5번,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정상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 분담금을 23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11번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성과 개선 필요, 수용입니다.

연번 12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예산 불용 주의 및 조속한 위원회 구성 필요, 수용입니다.

연번 13번, 세종학당 사업 목표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14번,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주의·제도개선인데 주의·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15번,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정상화 필요, 시정으로 해 주셨고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우선 연번 14번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과 이기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께서 주의·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주셨고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승수 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가서,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애초에 의견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냈는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러셨습니다.

또 이기현 위원님은 애초에 어떤 의견 내셨지요? 제도개선 내셨습니까?

○이기현 위원 제가 주의 냈나요?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현 제도개선이십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한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본 회의 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이 아니면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2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많은 로스(loss)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도개선 수용,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문체부 내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 마시고 특히 취약 지역에 예술 문화와 관련된 향유 시설들을 더욱 확충하는 계기점으로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순회 공연도 많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순회 공연, 순회 전시.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에서 청년문화패스의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회수율은 전남이 또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사용률이 너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 공연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건데 지방에서 문화패스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세종학당은 지금 제도개선으로 넘어갔는데 세종학당이 어쨌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케이팝의 열풍에 힘입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종학당이 지정 해제되고 자진 해제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전 관리 철저히 하고 우리 한글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땀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관님, 어제 상정할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금 사용 대상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설들 말고 온라인 쪽으로는 어떤 게 가능한 게 있습니까, 온라인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온라인 쪽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사실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 보려고 그러면 그냥 네이버 웹툰 들어가서 쿠키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런 것 한단 말이지요, 보면. 영화도 보면 유튜브도 유료영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읍면동 단위에 가면,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읍에 나가도 극장도 없어요. 사실 공연, 연극 볼 데가 없지요. 돈 쓰고 볼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만들어 놓고 쓰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집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는 사용처가 마땅치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순수예술 이용을 촉진하겠다, 청년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하는 당초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전시 인프라 및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음악 콘서트 및 페스티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하고는…… 변경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처가 예스24하고 NOL티켓 두 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도 굉장히 부족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도 매우매우 부족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도 다변화하고 이용처 확대 그리고 집중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 사업 목적이 이것과 맞지 않으면 아예 여러 방도로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연번 14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으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첫해인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처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 조계원 위원님께서 지방 문화예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씀, 김재원 위원님의 홍보 마케팅 또 이용처 확대, 이용 목적의 조율 취지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정부 측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정상화 필요에 관해서 지금 시정 의견을 조계원 위원님께서 내셨나요? 그러나 정부에서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일단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문화강국을 여는 그 저변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전까지 극도로 제약되고 축소되는 상황을 빚었습니다. 사실상 파행적으로 운영되다시피 했고 겨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가 되면서 학교예술강사들이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다시 낮추는 것보다 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시켜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예술강사,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한 칸 낮춰달라고 요청드린 것은 교육부하고의 협의에서 교육부가 완강해서, 저희가 그것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정부가 일부 수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11번, 아특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특회계 집행률이 81%대…… 그런데 내역사업으로 들어

가서 문화중심도시 육성 쪽에 들어가 보면 집행률이 거의 매년 한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거지요. 집행률이 낮은 것,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2조 원 훨씬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명칭에 걸맞게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책 목표가 어떤 식의 문화중심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차관님, 어떤 문화의 중심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명칭 그대로 창·제작 중심으로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 태어나겠다는 건데 그 목표에는 지금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해 사업 가지고 이게 상당히, 효과성이 미미한 또 준비가 안 된 사업들도 막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제도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중심 사업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광주비엔날레 이외에는 우리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그 사업 위주로 뭔가 확 투자가 집중되면서 말 그대로, 문화가 얼마나 분야나 장르가 다양한데 모든 장르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쪽에 핵심 장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관님 너무 잘 알고 여기 와 계십시다만 민형배 위원이 더 잘 알지 모르지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얹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내의 정치권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이런 데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이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보면 소지역 주위의 전체적인 큰 틀의 목표나 비전이 좀 흔들려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일이 더 이상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큰 가닥을 잡아 주면 지역에서도 이야기하기가 더 수월하고 의견을 더 모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좋은 게 좋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좀 혁신적인 그런 쪽으로 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5쪽입니다.

16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할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 시정·주의입니다.

16쪽입니다.

17번,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 필수경비에 대해 면밀히 산정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17쪽입니다.

18번,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 시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순방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18쪽입니다.

19번, 분기별 집행을 점검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교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을 제고를 위해 분기별 집행을 점검하고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것, 주의입니다.

20번은 의원실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먼저 연번 16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 시정·주의 2개 주셨는데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연번 17번,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 필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정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9번, 분기별 집행을 점검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교부 필요, 주의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0번,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BTL 도입…… 이건 철회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으로 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 의견을 대신 이기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특별하게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9번, 역시 이기현 위원님께서 주의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 측 제도개선으로 일부 수용 의견 냈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기현 위원 수용하고요. 중무실은 이따가 끝나고 좀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까?

○이기현 위원 차관님도 잠깐 같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기록에 남겨야 되는 말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2차관 소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니요, 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9쪽입니다.

21번,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양.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자부담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보조금 교부를 지양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자부담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시설별 집행기능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20쪽입니다.

22번,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운영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콘텐츠공정상생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불공정 피해신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1쪽입니다.

23번,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통폐합 등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검토해 필요에 따라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통폐합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인 사업효과 검증 및 성과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배점 방식을 개편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하는 등 성과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기존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24번,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리 철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체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할 것, 시정·주의입니다.

23쪽입니다.

25번, K-콘텐츠 펀드 게임계정 신설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모태펀드에 게임계정을 신설하고 게임계정의 운용에 있어 정부 출자 비율을 최대 70%까지 허용하는 등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용을 통해 게임산업 지원을 확대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21번,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양은 주의, 제도개선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2번,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운영 개선 필요, 제도개선이고 수용합니다.

연번 23번,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통폐합 등 검토 필요, 시정·주의·제도개선 의견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4번,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리 철저, 시정·주의 의견 주셨는데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5번, K-콘텐츠 펀드 게임계정 신설 필요, 제도개선인데 이것은 일부 수용이 아니라 사실은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 계정을 따로 독립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앞서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것이 많지만 말씀을 아끼신 것 같은데, 종무실 전통사찰 보존 사업도 그렇고 뒤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들,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보면 준비 안 된 사업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과연 저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또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칙과 기준 틀을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스님들조차도 보면 몇 분 안 되는 그런 사찰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제 조만간 아마 폐사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예 스님이 없는. 그런 데 대해 오히려 지금부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거지요, 자꾸 신규 시설보다는.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새로운 시설보다는…… 불자들은 대부분 또 노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사찰 오고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노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산불로 굉장히 크게 피해가 났습시다라는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시설들 이런 쪽으로 지원 대상을 좀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도 검토한 것들 나중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거점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작년에 제가 예산 때 지적했었어요. 이게 성과를 보고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의 KOTRA나 다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또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요,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렇게 별도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원에 입주해서 아니면 그렇게 KOTRA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꼭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보다는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모델을, 이쪽에는 이런 모델 저쪽에는 저런 모델,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또 시정·주의 조치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연번 21,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으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주요요청을 하신 이기현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이기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정연욱 위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연욱 위원님, 의견 있으면……

○**정연욱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25곳 정도

가 있는데 비즈니스센터의 인력이 한 명만 배치된 곳이 9군데나 돼요, 여기에 보면 러시아, 독일, 스페인, 영국 포함해서. 이렇게 흩어 놓는…… 통폐합 얘기는 나오지만 통폐합한다는 취지는 지금 100% 공감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 명이 배치되는 곳이 전체 25곳 중에 9곳이나 된다면 이 인력을 운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급하게 확장을 하는 바람에 직원이 한 명 가고 현지 채용을 몇 사람 하는데……

○정연욱 위원 그러면 그건 전형적으로 생색내는 절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산 자체의 취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몇 군데, 특정 국가가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성과를 내는 건지를 보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성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할 곳을 먼저 고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과의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지를 먼저 선별을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먼저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저도 관련해서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가 콘텐츠진흥원 관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조계원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 한 명, 한두 명 있는 영국 런던이나 이런 데 보면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원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같이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도 한 군데 다 모여서 코리아센터로 해서 그게 훨씬 효율적……

○조계원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25번까지의 위원님들 말씀은 이 정도 정리할까요?

김재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들은 말에 따르면 한 명씩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현지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를 접촉할 때 현지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가지고 다음 사업 계획은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정부 측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확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더 한번 깊은,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가지고 의견을 정리해서 국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연번 25번까지의 내용은 이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4쪽입니다.

26번,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비율과 정부 출자비율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목적 투자비율과 정부 출자비율 간 불일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민간투자를 유도할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을 정부 출자비율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5쪽입니다.

27번,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지연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자펀드 결성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연장 허용 기준 강화, 민간 운용사 선정·결성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26쪽입니다.

28번, 모태펀드 문화계정, 최소 수익률 낮아 운용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 펀드의 기준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는 펀드 외에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 자펀드의 기준 수익률을 장르별 또는 시장성·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보수는 수익률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29번, 콘텐츠 전략펀드의 민간자금 적극적 유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전략펀드가 정책펀드로서의 취지와 정당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간출자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30번, 지방보조사업 예산집행 관리 기준 보완 적극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문화유산 발굴과 같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산집행 점검 관리의 예외로 하여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26번,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비율과 정부 출자비율 개선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번 27번,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지연 개선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8번, 모태펀드 문화계정 최소 수익률 낮아 운용 개선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29번, 콘텐츠 전략펀드의 민간자금 적극적 유치 필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합니다.

연번 30번, 지방보조사업 예산집행 관리 기준 보완 적극 검토 필요, 제도개선 요구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될 경우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일부 수용을 했는데 사실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일부 수용인데 진중오 위원님께서 27번 그다음에 28번 등에 관해서 주의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중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없습니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모두 정리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번에 모태펀드하고 전략펀드가 예정처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문체부 펀드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콘텐츠국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문화기술투자과에서 담당 사무관 1명, 담당 주무관 1명, 이렇게 2명이 현재 펀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분들은 이런 펀드와 관련되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특채한 직원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현재는 일반공무원이고요. 금년에 이 과가 임시 과에서 정식 직제로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전문임기제 직원들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존의 이런 펀드 업무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지요, 거의? 그렇지요, 현재 있는 친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민간에서 펀드 운용을 하다가 온 그런 직원들은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자펀드 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직원들이 얼마큼 하겠는가,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부분을 문체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누가 알아 가지고, 막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뛰어다녀도 지금 민간 부문의 투자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과를 정식 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을…… 그것도 일반공무원 같으면 일이 년 있다 또 다른 과로 옮길 거 아니겠

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얼마 이상, 이 부분만 파고들어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들 텐데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오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요. 콘텐츠 전략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할 때 국내의 자금만을, 펀드를 조성하거나 투자를 받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선도국의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라든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아예 글로벌로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글로벌 자금까지 우리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자료 23페이지, 연번 25번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면서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게임산업의 투자 비율을 늘리고 게임펀드 신설 등 맞춤형 운용을 통해 게임산업 지원을 두텁게 할 것’으로 변경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부터 좀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31번부터 35번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9쪽입니다.

31번, 게임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지원에 있어 모바일과 PC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내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2번, 국비보조사업 사전 확인 절차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보조사업 편성 시 국회 예산 반영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수요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0쪽입니다.

33번,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 지원 인프라 사업 지속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민간 주도 운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34번, 부문장 인건비 사업비 전용 사용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 혁신 부문장 직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것, 시정입니다.

31쪽입니다.

35번,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등급분류 기준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31번, 게임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제도 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32번, 국비보조사업 사전 확인 절차 강화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33번,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 지원 인프라 사업 지속 필요, 이 건은 일부 수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26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24년 결산 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질의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연번 34번, 부문장 인건비 사업비 전용 사용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 필요, 시정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5번,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요구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정부 측의 의견이 다른 것은 33번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설명이 이것은 26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나중에 정책질의 때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타당해 보이므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1번부터 35번까지는……

○김승수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31번, 모바일·PC 게임과 콘솔게임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너무 모바일·PC 위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세계 게임시장은 또 콘솔게임 시장도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콘솔 쪽이 우리가 경쟁력이 약해서 이 부분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육성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콘솔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게임장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 학창 시절의 그때를 향수하면서 콘솔게임장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재 시장이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런 세계 게임시장 내 각 분야의 경쟁력이 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부터 전문위원 의견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1쪽입니다.

36번, 신기술 문화 R&D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획단계 설계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불가피한 예산 감액 등 외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를 관련 과제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2쪽입니다.

37번, 신기술 정책의 일회성 대응 지양과 지속가능한 정책체계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신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회성 산업육성 프레임이 아닌 장기적 문화생태계 안에서 기술·콘텐츠·인재·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을 정립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3쪽, 38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제도개선입니다.

34쪽, 39번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제도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5쪽, 40번 언론진흥재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 및 환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사용한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부정사용액을 환수조치할 것, 징계·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36번, 신기술 문화 R&D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획단계 설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37번, 신기술 정책의 일회성 대응 지양과 지속가능한 정책체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시정과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번 39번,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40번, 언론진흥재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 및 환수 필요, 징계 및 시정 요구 중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40번, 임오경 위원님께서 징계, 시정 요구하셨는데 시정으로 조정해 달라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오경 위원 안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말씀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현재 남정호 본부장이 소명

을……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사무감사에 있어서 소명을 인정해 준 꼴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처음에 사무감사 했을 때 말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임오경 위원 어떻게 업추비를 사용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주고 인정해 줘니까? 이것 위법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재감사해서 징계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곧 재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당 부서에서 사무감사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임오경 위원 사안감사로 재실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재감사를, 특정감사를 한번……

○임오경 위원 사안감사로 해 주시라고요, 사안감사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특정사안감사.

○임오경 위원 예, 특정사안감사로 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40번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의 사무감사 차원이 아니라 특정사안감사제, 재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됐습니까?

○임오경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36~40번 사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영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영화 부과금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차관님이 오셔서 확인하셨겠지만 석 달 만에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다시 영발기금을 만들어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2025년도 우리 영화인들에게, 영진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600억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기재부에서 세입 규모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어떤 재원에서 모자란 영화기금을 확충할지는 재정 당국에서 현재 최종 조율 중인데 저희가 아직 사안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걸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 좀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드백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서는 진짜 영화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 국고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을 저희가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도 예산 보고를 다시 한번 받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저도 영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영화발전기금 폐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으로 문화예술산업들 대부분은 회복했는데 영화계가 지금 제일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자칫하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새로 부활된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다시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또 우리 경쟁력이 OTT에 맞서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 또 문체위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홀드백 문제는 어차피 여러 번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서로 간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제 다음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5쪽입니다.

41번,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예산 편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비목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필요예산을 책정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증액해 여론집중도조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6쪽, 42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제도개선입니다.

37쪽, 43번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8쪽, 정책질의사항입니다.

1번, 총괄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맞게 문화 ODA 전략을 수립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번, 총괄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우수인재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번, 향후 재영 한국문화원 건물을 매입하고 세종학당·콘텐츠진흥원 등 재외 국내기관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4번, 정부광고 정책 관련 2024년도 정부광고 집행액 중 지역매체 대상 집행액이 14.6%이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사 중 지역언론사 비중이 13%에 불과한 점 등 지역언론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언론 진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41번,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42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 방안 필요, 시정·제도개선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견으로는 이게 시정·제도개선으로 2개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부 수용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연번 43번,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필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음 정책질의 1번, 문화강국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문화 ODA 전략 수립 및 규모 확대 필요, 수용합니다.

정책질의 2번,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필요, 수용합니다.

정책질의 3번, 재영 한국문화원 건물 매입 및 재외 기관 통합 필요, 수용합니다.

정책질의 4번, 지역언론 진흥 방안 검토 필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 수용하셨고요.

다만 연번 42번에 대해서 일부 수용으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이 있었는데 손솔 위원님과 양문석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예산은 애초에 250억 규모에서 작년도 한 83억 정도가 채 안 되는 규모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기금 출연이 전액이고 일반회계 출연은 2년 연속 0원인 이런 상태로 기금 확보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문체부에서 미디어국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마 일부 이 기금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방향 쪽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복지예산의 증가 등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 쪽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증액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또 격려도 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의 기금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 눈높이의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적을 받기 전에 문체부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이 증액되면 당연히 그 기금 운용에 관해서 투명성·공정성·효과성이 더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안이 정부를 통과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정기국회 기간도 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국민들께 기금이 확대된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언론 또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진흥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에 따라 규제할 것은 또 없는지,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넓고 더 효과적으로 이 기금을 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체부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의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저 질의 좀……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승수 위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이 재영 한국문화원 건물 매입 이렇게 정책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사실 이 부분은 런던뿐만 아니라 같이 못 있는 문화원이 많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걸 늘 문체부는 추진해 왔던 기조였고요. 그래서 예산만 되면 늘 하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현재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지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임대입니다.

○김승수 위원 위치야 가장 좋은 지역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트라팔가……

○김승수 위원 그 부분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국 대사관도 사실은 옮기려고 그러다가 못 옮겼거든요, 그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참고로 파리에 있는 프랑스문화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800억대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가치가 5000억 원입니다. 그때 당시 같이 추진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순수 임대료만 1억이 넘고 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게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승수 위원 프랑스문화원은 강유정 의원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위치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또 다른 관광공사하고 다 같이 거기에 입주해 있어 가지고 시

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사례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재원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정책질의 사항 중에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ODA 전략에 관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A 전략을 수립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문화적인 그런 수준이 높다 보니까 문화인력 자체도 사실은 지방에서 실용음악대학이나 체육대학이나 예술대학을 나오더라도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한테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케데헌’ 노래 만든 이재라는 친구도 나이가 많아서 연습생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냥 해외에 가서 살다가 음악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잘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은데 그들이 사실은 콘텐츠 때문에 온 거고 그래서 배우고는 싶어하는데 한국 춤이고 노래고 다 현지 교민이나 좀 잘하시는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학당에서 운영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행안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지원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인력을 다른 직업군으로 빠지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모색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ODA 전략을 짜실 때 문화인력 파견까지 포함한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조금 비껴 간 얘기지만 앞서 저희가 박물관이나 조성사업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럴 때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설계 지연, 예산 이월되고 미집행되는 게 많잖아요. 이 불가피한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걸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 주지 못하면서 예산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 삭감으로까지도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체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문화재가 발굴돼서 짓다가 멈춰 섰으면 그 예산은 지켜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규정을 바꾸는 게, 문체부 규정이 아니고 기재부 규정이라서 그게 좀……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이 기간도 다 다르잖아요,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가 발견돼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게 되면 이것도 기간이 또 달라요. 2년, 3년 걸리는 데도 있고 몇 개월에 끝나는 데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금방 하는 데도 있고.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해 놓고도 미집행

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특히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지금 재외 한국문화원 설립 요구가 세계 각국에서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 보니까 KT&G가 현지 공장이 있더라고요. KT&G가 현지 대학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알마티는 고려인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문화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문화원이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례도, 문화원을 우리가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현지의 대학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문화진흥원보다는 인력이라든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훨씬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또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띤 깊이 있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사회를 보는 회의에서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전문위원께서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로 일괄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은 총시정요구사항 12건, 정책질의 12건 그다음 맨 마지막 쪽에 감사원 감사청구 2건입니다. 그래서 6건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1번, 정책홍보 민간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집행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홍보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2번, KTV의 저작권 관리 역량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 시정입니다.

5쪽, 3번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한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진 시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을 당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쪽, 4번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지역별 할인 혜택 제공 사용처를 확대하고 향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계획 편성 취지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7쪽, 5번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 검증 및 수수료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검증제를 도입하여 실질적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고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하여 플랫폼 수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8쪽, 6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 관리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집행 지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페이지,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집행 필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음 4페이지, 한국정책방송원의 저작권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를 수용합니다.

5페이지, 기금 변경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추진 필요, 근로자 휴가 지원 및 숙박할인권 지원,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합니다.

6쪽,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 둘 요구를 다 주셨는데요. 정부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쪽,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 검증 및 수수료 개선, 시정 의견을 수용합니다.

8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 관리 개선, 주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연번 4번에 관해서만 일부 수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이 제도 개선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의 요구사항을 내신 진중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중오 위원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이게 초반에만 반짝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이 미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으로 내리는 데 그만한 제안을 주셔야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사업 추진한 지 오래는 안 됐지만 그동안 보면 점차 지역도 확대돼 오고 혜택지도 상당히 확대돼 왔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제도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연도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라는 건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참여율이 낮은 문제 그리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이 불가한 문제 이게 있는데 일단 고령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가입을 도와주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앱을 통해서 꼭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민간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그리고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층의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핸드폰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지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주민센터에서 도와서 등록할 수 있게 해 주면 고령자층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여행을 또 많이 가잖아요, 고령자층이, 돈도 많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고령자층을 위해서도 개선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명목상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모바일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신 거 같아요. 고령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오프라인 창구를 어느 정도 열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센터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 정도 업무 자체야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프라인 접근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느낌을 줘 버리면 그게 어떻게 확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약간의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은 열어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연욱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설명만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예 못 하게 막는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연구를 통해서 고령자층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진중오 위원님께서 애초에 의견을 주신 대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전 국민들에게 홍보 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과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대책도 그 이후에 함께 필요한 문제 같아 보여서 지금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겠다 했으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홍보의 문제와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 수용 제도개선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5번의 숙박할인권 문제는 김재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숙박업소들, 영세 숙박업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플랫폼만 수익이 나게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쿠폰을 사용해서 예약한 것에 대해서, 플랫폼사를 통해서 예약했다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쿠폰 혜택이 플랫폼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숙박업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것 고민을 해야 되고.

8페이지, 6번에 있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광거점도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는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5개 중에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고 해서 국제관광도시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도시, 강릉 전주 목포 안동은 지역관광거점도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약 50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종의 원칙으로 크게 한번 외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또 내국인들한테도 이것을 지정하므로 해서 관심을 유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나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진짜 지정된 도시들이 주변 도시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광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이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전혀 그런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보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이것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수용하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4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4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제휴업체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제휴업체가 참여 시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할인에 대한 정산지원금 이런 것들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숙박할인 쿠폰이 문제가, 숙박업계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쿠폰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 국민 세금에 대해서도, 집행되는 부분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그것으로 플랫폼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이용해도 우리에게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 숙박업계라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동해서 찾으려 한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혜택지가 참여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정치하게 연구하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연구를 제대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재원 위원 잘하겠다는…… 제가 드리는 건 한 가지 의견인데요.

이러한 세금 부분이 플랫폼의 수수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역 숙박이라든지,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광고비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가입 자체를 꺼려 하는 그런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택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알게 되면 수수료가 그렇게 낭비되거나 사람들이 쓸 곳을 찾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9쪽입니다.

7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실행행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시설 확대 등 이용자와 가맹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 규모의 계획을 편성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유·청소년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10쪽, 8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실행행렬 지역별 편차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실행행렬이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11쪽, 9번 스포츠 R&D 예산 복원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R&D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적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2쪽입니다.

10번, 국립체육박물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체육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 박물관 운영 및 스포츠 유산 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3쪽, 11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지연 및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정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미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12번 대한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당 2명씩 인력 증원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예산에 정 가맹단체당 2명씩 증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의 인력 수의 형평을 도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행행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행렬 지역별 편차개선 필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1쪽, 스포츠 R&D 예산 복원 필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합니다.

12쪽, 국립체육박물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필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합니다.

13쪽,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주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14쪽, 대한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당 2명씩 인력 증원 필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일부 수용으로 돼 있는데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우선 진종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연번 7번에 관해서?

○진종오 위원 7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생지원카드 당근에서 거래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거래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고요.

○진종오 위원 당근마켓에서 이런 이용권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잖아요. 이런 것,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거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쿠폰을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체육시설에다가, 저희 사이트에 있는 체육시설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 이 돈이 지급되는 형태여서 본인이 돈을 가져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에 바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에서도 옛날 방식처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것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전에 등록을 하고 돈으로,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현재는 저희가 그 금액들을 월에 10만 원씩 쓰게끔 한정시켜서 그 부분들은 줄어들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진종오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 일부 수용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육국장님, 얼마 전에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도 그렇고 거의 다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김승수 위원 지금 이것 제도개선하라고 계속 지적이 되고 또 제도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도개선 방안 검토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올해부터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애들이……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이 없는 또는 유료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사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가맹이 늘어나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김승수 위원 아무리 가맹이 되더라도 읍면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겠습니까, 유료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지요, 영업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 강좌 바우처는 유·청소년이 대상이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 스포츠강좌도 보니까…… 유·청소년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읍 소재지까지 이것을 이용하러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원래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이용을 하면 그래도 몇 달 장기간 이용해야 효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회성이라는 거지요, 지속가능성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시설은 저희가 늘려 가는 부분을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김승수 위원 시설을 늘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공공시설을 늘리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공공체육시설도 일부분 유료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시설 사용 가능하게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읍 지역이지 인구 2000명, 3000명도 안 되는 면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적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배분할 때 각 지역에 인구 대비로 배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들의 우려를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진짜…… 우리 지역, 고향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면 읍에 나가도 유료 체육시설이 몇 개 안 돼요, 동네는 아예 없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이용권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서부터 문제 대안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르신 체육시설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쿠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에 그 정도의 예산을 쥐 가지고 그 지역에 운동기구라도 설치되도록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그때 드렸던 거고, 물론 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운동기구를 렌탈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포츠시설이 없는 데는 만약에 렌탈하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하면 그 렌탈비로 쓸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렌탈할 수 있는 쿠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지만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이 지방에 가 보면 사실은 지방도시의 읍내까지 나오는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집행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번 8번에 보면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께서 내신 자료 같은데 거기의 집행률을 보면 대구, 광주, 울산 등 실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충남, 충북, 강원 이런 곳은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접근성 같은 것이 낮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서울은 왜 낮을까라고 하

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 그것 잘 고려해서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나중에 국정감사 이런 때 질문이 나올 때 좀 더 진전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부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2번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정책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정책질의 사항입니다.

15쪽, 1·2·3번 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이고요.

1번, 생활체육 활성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예산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행률이 낮은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2번, 생활체육지도자 경력 인정 제도 부재, 지역별 수당 편차 문제 등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호봉제 전면 도입, 근속수당·가족수당 등 대책 마련 필요.

3번, 일부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은 하지 않고 사무직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현장 지도자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16페이지입니다.

4번, 대한체육회 상업권자에 대한 독점공급권 제공 관련 대한체육회는 계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논의해 대책 마련 필요.

5번,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스폰서 계약 유치 및 이와 관련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의 상업권자에 대한 독점공급권 제공에 따른 수익계약 허용 필요.

6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통합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적합성 확보·본인인증·온라인, 현장투표 병행이 가능한 보안체계를 마련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집행 제고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일부 수용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각각 연번 1·2·3번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쪽입니다.

정책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집행 제고 마련, 이 사안은 실행률이 92%로 준수하

지만 또 일부 미진한 사업도 차질 없이 하도록 수용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거기에 일부 수용이라고 의견을 낸 걸 수정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진중오 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것은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연번 2번 진중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세 번째, 또 진중오 위원님에 대해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정원 확대 부분은 유사한 공공부분의 또 다른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예산하고도 긴밀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들은 정원 확대보다도 진중오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처우개선 쪽에 먼저 더 치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 수용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진중오 위원님께서 처우개선 대책을 말씀해 보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진중오 위원 처우개선은 이미 그전에 얘기를 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처우개선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년에 몇 명씩 충원되지요? 1년에 충원되는 인원이 있던데요.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일부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부 수용이면 정부 측에서 수정되는 위딩을 이야기해야지 그걸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처우개선을 먼저 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김승수 위원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정책 4, 대한체육회의 상업권자에 대한 독점공급권 제공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이게 박정하 위원님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4·5가 같은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책 6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정책 6,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일부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통합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TF를 운영 중인데요. 거기서 방안이 마련되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가 아니라서 좀 중장기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부 수용의 표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제도개선TF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 결과를 보고 문체부 입장을 정하겠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올해 말까지 운영할 텐데요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연번 6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선거제도개선TF를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여기 통합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게 전국 종목별 단체뿐만 아니고 또 시도, 시군구의 종목별 단체 선거까지 다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제도개선TF에서는 대한체육회 회장뿐만 아니라 각 시도 체육회장들에 대해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게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 단체 회장선거까지 한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걸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면 그것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치르는 선거에 한해서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종목별로 또 시도 종목 단체 여러 가지 보면 문제들이,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특정 단체에서 후보자끼리 동수가 나왔는데 한 표가 무효표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해석을 어디에 했느냐, 유권해석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그것도 또 논란이 있더라는 거지요. 선관위 해석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 대한체육회 해석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한체육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 꼭 법정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 유권해석은 어디에 있다,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

회에 다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실제 자체 선거를 치렀을 때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6쪽입니다.

7번,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하여 생활체육 예산 집행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있었으며 현 대한체육회장도 과거체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스포츠ICT 통합체계 관련 유지관리 예산을 정상 반영하고 통합 관제·보안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를 실시할 필요.

9번, 스포츠ICT 통합체계 관련 데이터·인프라를 활용한 AI 기반 국민스포츠 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맞춤형 종목 추천·경기분석 기능 로드맵과 ISP 등 예산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10번, 우수선수 양성 지원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수촌과 선수 중심의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ISP 수립·인프라 정비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가능한 국가대표 선수촌 통합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필요.

11번, 중학교 씨름부 폭행사건 관련해서 경북 상주의 중학교 씨름부에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필요.

18쪽입니다.

12번,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을 지역 균등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포츠지도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정책 7,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 예산 환원 요구 관련 대책 마련, 정책질의에 대해서 일부 수용합니다.

정책 8, 스포츠ICT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수용합니다.

정책 9, AI 기반 국민스포츠 참여 플랫폼 구축, 일부 수용합니다.

정책 10, 국가대표 선수촌 통합시스템 체계 마련, 일부 수용합니다.

정책 11, 중학교 씨름부 폭행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수용합니다.

정책 12,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 수도권·비수도권 균등해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하는 안에 대해서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부 수용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예산집행 체계 개편 효율성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연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연번 9번에 대해서, 10번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9번, AI 기반 국민스포츠 참여 플랫폼 구축과 선수촌 통합시스템 이것은 사실상 수용 의견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AI 기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그걸 포함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국가대표 선수촌 시스템도 앞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이 되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면 9번, 10번은 현재 계획이 미수립 상태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미수립이라서 계획이 수립되면……

○소위원장 박수현 향후에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일부 수용이지만 사실상 수용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일부 수용으로 정리를 확실히 하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건 그렇게 정리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지금 각 시스템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구축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10번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9번은 지금 현재……

○김승수 위원 8번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8번은 대한체육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9번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9번도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두 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면 10번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10번은 대한체육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설의 관제·보안체계 보완한다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8번은 현재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이 올

해 완료가 되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관리되는, 관제·보안되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여기 지금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시스템이 올해 완성이 되면……

○**김승수 위원** 이걸 가지고 통합 관제·보안을 하겠다는 거를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통합 관제·보안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성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서버라든지 장비들을 보안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외부에서 해킹이나 들어올 때 이럴 때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걸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어쨌거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의 대한체육회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항목이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우수선수 양성 지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을 별개로 구축하는 것이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김승수 위원**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걸 기본적으로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고 구축했을 경우에 통합…… 이게 모든 것을 도저히, 선거하고 별개라고 해서 좀 분리해서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ISP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가능하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는 편리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 찢어발기듯이 해 가지고 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말씀드린 게 8번은 지금 이미 완성된 거고요. 9번, 10번은 그런 말씀 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개발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책질의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보면.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순서를 바꾸어서요,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1번, 2번이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하는 중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순서를 바꿔서 할 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하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일단 질의하십시오. 그걸 포함해서 답변 준비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요, 지방이관 사업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임오경 위원 이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듣기로는 연구용역이 장점 위주로 생활체육을 지방으로 이관한 것에 중점을 두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객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걸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관 사업은 안 된다고 했지요. 지역에서 그 단체장들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종목으로 다 치우쳐서 오히려 이게 정치권 개입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리고 이거 관리는 대한체육회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이관했으면 문체부가 해야지요. 문체부가 마음대로 이관시켰으니까 문체부가 하세요. 그걸 왜 대한체육회에다 넘깁니까? 그 말씀을 저는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학교 씨름부 폭행 사건에 관련돼서 차관님, 이거 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문체부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학생선수들 지도자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어서 그 윤리센터가 또 교육청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지금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훈련 관련된 부분은 훈련비 지원 부분이 있고요. 최저학력제나 수업일수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학교 운동선수 관련해서는, 학생선수에 관련돼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제시밖에 할 수 없지요? 대회 출전에 관련된 것은 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지금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교육부 소관이 많습니다.

○임오경 위원 모든 게 다 교육부 소관이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운동하는

학생선수를 다 바꿔 났습니다, 최저학력제도.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여기를 수용이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를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관여를 하고 싶으면. 지금 빼앗길 거 다 빼앗겨 놓고 이제 와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듣는데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켜던 내용들은 학교 운동부 이외에 체육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임오경 위원 지금 이 모든 지도자들, 학교 학생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모든 교육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국고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운동부에 대해서는 모든 성폭력이나 폭력의 경력이 있는 지도자는 다 퇴출시키라고 저희가 공문을 냈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래서 저희가……

○임오경 위원 학교 안에서 성폭력, 모든 폭력 사건까지 학교에서 일단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나 문체부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밖의 대회 출전 그리고 성인팀 중심으로 다 대한체육회, 문체부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넣는다면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의 인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질 교육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 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학교체육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성인팀은, 직장 운동부는 다 관여를 할 수 있지만 학교 운동부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다 다 이관해서 학교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교육부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부처 간의 적극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교육부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다 문체부로 떠넘기지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모든 권한은 지금 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만 또 문체부로 떠넘기니까 이거 부처 간에 합의를 잘하셔서 우리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만들 건지 그런 정도로 하

서야지 모든 걸 수용해서 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저도 7번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생활체육 예산 관련해서 468억인가요, 금액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416억……

○조계원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원래는 결정을 했었어요. 기존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예산이 감액 예산만 통과가 되고 그때 조정이 안 됐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원상 복구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육회를 전부 선거를 다시 해서 뽑은 이유가 뭐니까? 정치하고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독립적인 체육활동과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시장·군수가 임명하던 체육회장을 별도 선거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도 선거를 통해서 임명하는 체육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혹시 부대의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중지하고 뒤에 감사원 감사청구사항에 관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 측의 의견 정리, 부대의견 정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연번 1, 연번 2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9쪽입니다.

둘 다 KTV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1번,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열쑈 신명나는 우리 소리’ 방송 녹화에 대한 김건희 씨 관련 특혜 및 소록도 방문에 맞춘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운영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필요.

2번, 문화체육관광부는 KTV가 김건희 씨 풍자 유튜버를 게시영상 무단 사용 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고 국비로 변호사 비용을 납부한 사실,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2건 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냥 따르신다고 하니까 이걸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상임위 결정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논의하던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부대의견 정리 등에 시간이 좀 소요되므로 이것은 보류사업으로 하고 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김대현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잠시 퇴장하셨다가 유산청 심사 마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차관님 수고하셨고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씩 일괄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정규직 고용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차년도 인턴 기관 모집 시 인센티브 마련 필요.

국가유산청은 정규직 고용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차년도 인턴 기관 모집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2,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3,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 발생 방지 및 용역업체의 과업수행 기간 보장 필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 및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 참석인원을 철저히 예측하여 향후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역업체의 과업수행 기간도 보장할 것, 주의입니다.

6쪽입니다.

4, 체계적인 예산 편성·배정 방식 마련 및 지급 여부·요율 등의 재검토 필요.

국가유산청은 보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식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람환경 개선비의 지급 여부 및 요율 등을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5,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관리를 개선할 것, 주의.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1번에서 4번까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청 입장은 앞으로 저희가 드론 운영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지표도 만들어서 성과도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임오경 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진종오 위원님께서요?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리되었습니다.

6번부터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8쪽입니다.

6, 국가유산에 대한 선제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국가유산청은 산림청에서 도입한 수관수막타워 등의 도입을 통해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9쪽입니다.

7,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 방식 개선 필요.

국가유산청은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유산 복구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10쪽, 8 해외 소재 국가유산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조사와 수집 필요.

국가유산청은 해외 소재 국가유산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와 환수 노력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11쪽, 9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주의입니다.

12쪽, 10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운영비 등 적정 수준의 집행계획 마련.

국가유산청은 예상 사업 기간을 면밀히 추계하여 향후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계산하여 집행계획을 세울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6번부터 10번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장님, 시정 또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해야 돼요,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김승수 위원 내가 이것 3건에 대해서 주의로 했는데 사실은 7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번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주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6번은 이번에 또 산불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정했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이 주의 요구를 많이 하셔서 수용이 다 됐는데……

국가유산청의 아주 적극적 자세를 격려합니다. 수용해 주시고.

○김승수 위원 특히 예결위 가서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래야 돼요, 작년보다는 지적사항이 줄었지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1번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3쪽, 11번 사업 추진경과 점검을 기초로 한 예산 요청 및 이월·집행 부진 방지 대책 마련.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추진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해당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이 2025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14쪽, 12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주의.

15쪽, 13 집행부진原因的 철저한 점검 및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가유산청은 점검이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집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16쪽, 14번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산집행 필요.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추진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2024년 12월 사업재개 결정에 따라 2028년 12월 목표로 개관을 준비 중이므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 주의.

17쪽, 15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공간 부족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 모색 필요.

국가유산청은 누적되고 있는 대형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 경복궁 내 수장고의 증축 불가 상황, 외부 임차 수장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외부 수장고 신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1번부터 15번 정부 측 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15번 제도개선도 수용을 하는데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BTL 방식도 좀 모색을 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입장은 가급적이면 국가재정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BTL 사업도 정부재정 투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14번 국립무형유산원, 지금 현재 본원이 전주에 있는 그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본원은 전주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무형유산원 상당히 취지는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원의 운영 상황이 어떤가요, 입장객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계속 공연 같은 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은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거의 만석……

○김승수 위원 만약에 본원이 만들어진다면 본원하고의 역할 분담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밀양하고 전주 본원과의……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본원.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전주에 있는 본원은 지정된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활용 전시들을 할 계획이고요. 밀양은 인류무형유산하고 비지정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요즘 어쨌거나 박물관들 찾는 외국 관광객들,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반기 중에 작년 관람객 숫자를 능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이렇게 무형유산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면 관람객을 끌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실제로 공연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역할 분담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시설이 늦어지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서도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 놔다가는 두고두고 그게 애물단지

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복궁의 민속박물관 세종으로 가면 그건 어떻게 쓰나요, 차후에 민속박물관 이전 후에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서 복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참 이게 고궁박물관 수장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복원을 하면 그 쪽이…… 과거에 어떤 시설이 있었던 거지요, 민속박물관 자리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궁능본부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입니다.

그쪽이 지금 왕실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선원전 영역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복원하더라도 그냥 상부 복원을 하면 복원할 때 수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하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수장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 순하게 복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장고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8쪽, 16 계획과 달리 미운영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예산집행 부적정.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목적과 집행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국가유산청은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것, 제도개선.

19쪽, 17 종묘의 사적 이용 논란 재발 방지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 발생 예방 필요.

궁능유적본부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사적 이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에 맞춰 운영하고 부적절한 사적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입니다.

20쪽, 18번 철저한 사업관리와 2단계 공사 공정률 관리 필요.

만인의총관리소는 향후 사업계획 검토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6번의 경우에도 시정요구사항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저희가 25년, 올해 5월 1일 정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주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주의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7번, 18번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우리 국가유산청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 나중에 예결위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가유산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국가유산청 소관의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 국가유산청에 대하여 주의 9건, 제도개선 9건, 총 18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 전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요구 관련해서 보고받으시고 심사를 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결위로 송부해서 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직접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서 하는 방법은 감사요구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또 통과되는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예결위로 송부를 해서 예결위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이것 역시도 예결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 판단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보았을 때 그래도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송부하는 방법을 택하고 예결위,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전체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예결위로 송부하는 사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기현 위원** 예결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안 올라가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직접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서 요구하는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본회의 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예결위에는 여러 부처가 모여서 오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의결을 해서 가는 방법이 그래도 더 현실적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임위에서 직접 의결해서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결위로 송부해서 요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KTV 황제관람 관련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로 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탄핵 시국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자체 문체부 감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어제인가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감사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감사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직접 한번 챙기도록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국정감사 끝난 후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 그때 가는 건 안 될까요?

○**이기현 위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거는 아니예요?

○**이기현 위원** 저희가 이미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었고 정말 가장 큰 이슈였던 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건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정한 것 중에 사실은 고발을 하지 않고 지금 감사원 감사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공지돼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나 기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로의 문제라고 하면 예결위 가는 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건에는 이 정도는 처리해야 된다, 결산 심사하면서.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다 종합해서 이 문제는 오늘 결산 소관 심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경로는 예결위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결정하는 경로를 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2차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차관께서 우선 첫째,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현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건을 그냥 정리를 딱 해서 그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저희들은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시정요구사항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8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률 지역별 편차 개선 필요, 이것 관련해서 명확히 정리가 안 됐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돼서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십사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정리를 안 해 주셨다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연번 8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정책질의 사항 관련해서는 아까 나온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책질의 요지 자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정책질의 사항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일부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고 사무직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현장 지도자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원 확대 검토 필요, 수용입니다.

6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통합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적합성 확보·본인인증·온라인, 현장투표 병행이 가능한 보안체계를 마련하며 중장기 로드맵(ISP, 예산·인력 확보)을 수립·추진할 필요, 수용입니다.

7번, 생활체육 예산 집행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 대한체육회장도 과거 체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예산집행 체계 개편 효율성 평가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 필요,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해서 정리한 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9번·10번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9번·10번 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빨리 정리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번입니다. 스포츠ICT 통합체계 관련 데이터·인프라를 활용한 AI 기반 국민스포츠 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맞춤형 종목 추천·경기분석 기능 로드맵과 ISP 등 예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 수용입니다.

10번, 국가대표 선수촌(태릉·진천·평창·태백)과 선수 중심의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ISP 수립·인프라 정비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가능한 국가대표 선수촌 통합시스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 수 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여기 8번·9번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ICT 통합체계, 그러니까 스포츠ICT 통합시스템은 지금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구축이 올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유지·보수 예산을……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대한체육회요.

○김승수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당초 시스템 구축 예산은 어떤 사업 항목에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운영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5번 예산으로 나왔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예산 항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관제보안 또 서비스 표준화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을 보안 쪽으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올해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당초에 시스템 구축은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에서 나오고 또 운영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운영 중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그 항목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운영은 여기 5261-300목에서 나왔는데 그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이 서비스를 별도 다른 항목 사업으로 잡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같은 항목에 넣을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누가 운영하냐고 해서 제가 대한체육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항목은 이 항목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밑의 것 이 부분도 지금 기존의 ICT 통합시스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나의 그런 DB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국민참여 플랫폼만 추가적으로 넣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붙이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밑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를 위한 또 다른, 그러니까 ICT 통합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게 진짜 따로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붙이는 게 맞는지를 이것도 연구를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 요지가. 지금 이렇게 각각 해서 별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 항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선거관리시스템은 성격은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ICT 통합시스템에 선거관리시스템까지 붙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애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장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의견을……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타당하신 말씀을 잘 정리하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측 이야기대로 이 문제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중장기 계획에 잘 반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이 지금 낸 시정요구사항 정책질의 요지에 대한 수정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정해 주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제2차관 소관의 결산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시정 6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8건 등 총 53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2건의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주의 10건, 제도개선 8건, 총 18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국가유산청 건 아까 발표한 수치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을 수정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9건·9건인데 10건·8건으로……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전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결산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현 문체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종무1담당관 김재춘

소통정책관 공형식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